

문화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개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농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계가 올해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문화복지, 도서관, 박물관 관광 등과 관련해 체계를 재정비, 문화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확대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당 지원한다는 점이다.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공연티켓의 고가추세, 평균 여행비용 등을 감안, 양질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만원 이상 티켓 판매 비율은 전체 공연 매출의 78.6%를 차지한다. 1인 평균 당일 여행 지출비용은 9만2497원이다.
사업 예산은 문예기금 699억원과 지방비 293억원 등 총 992억원이다. 내년 6페이지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1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오는 2월 17일(잠정)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급을 시작한다.
문체부는 “올해에는 문화분야 이용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발굴 및 기획상품을 운영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강사 시급 인상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시급이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장과 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시급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시급도 함께 인상된다. 예술강사 시급은 10여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됐다.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던 이유다.
불어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화, 운영의 내실화 등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평가제는 2018년 이후 신규로 추진되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가 아닌 기업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내년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급변하는 게임산업 기술환경에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대응, 창의적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TV와 VR 게임 등 첨단 기술기반의 신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 예술강사 시급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실시·박물관 평가인증제 본격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성인등급 등 제외된 모든 게임물로 확대

이달 1일 이후 추진되는 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
지자체 및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건립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전평가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공공도서관은 전국 1001개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장과 더

▲박물관 평가인증제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본격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6년 11월 30일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관리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지역 공립박물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사전평가를 신청(매년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설치 후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붕붕뿔뿔과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물놀이장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이용을 위해 수상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올해부터 월요일에도 정상 이용 가능”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관람객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2017년부터는 월요일에도 문을 연다.
그동안 월요일에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언제든 박물관을 찾더라도 상설전시실과 어린이박물관 등 박물관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1월 1일·설날(1월 28일)·추석(10월 4일) 등 1년 중 3일만 휴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열리는 ‘설·대보름 맞이 작은 문화축전’ 행사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로 옮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국립전주박물관은 더 나은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몇 년에 걸쳐 각 전시실을 전면적으로 개수하였으며, 박물관 앞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마침 월요 개관과 맞물려서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박물관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박물관은 문화축제 행사인 어린이날 문화축제(5월 5일),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10월 3일부터 10월 8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10월까지 매 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며, 셋째 주 토요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정해은 기자

우리 전통의상의 역사·아름다움을 전한다

전북대, 개교 70주년 맞아 ‘최운순 전통복식실’ 개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17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박물관에 ‘여천 최운순 전통복식실’을 개관한다. 개관식은 2일 오전 11시.
앞서 최운순 침선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은 2015년과 2016년에 전통복식 등 543점을 전북대에 기증한 바 있다. 전북대는 최운순 침선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에 ‘여천 최운순 전통복식실’을 신설하고 대표적인 복식을 선별해 전시한다.
최 침선장이 기증한 전통복식은 침선장의 혼이 배어 있고 시대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옷으로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의 복식을 비롯하여 상강의례 복식 등 다양하다. 조선 태조 청룡포, 영조 흥룡포, 양반적인 및 원삼을 비롯하여 복은공주의 활옷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중복식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최운순 침선장은 궁중복제를 연구하고 재현한 공적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침선장으로 지정(1998.11.27.) 됐다. 이후로도 다양한 우리 전통 한복을 연구



전북대학교가 2일 2017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박물관에 ‘여천 최운순 전통복식실’을 개관한다. 사진은 전통복식실 내부의 모습.

하여 그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최운순 침선장의 전통복식실 개관은 무형문화재의 개인사와 지역의 복식사를 오롯이 보존할 수 있고, 다양한 복식을 통해 전통 한복 연구 심화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 점 등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 박물관에 문을 열게 될 여천 최운순 전통복식실은 우리나라 옷의 역사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대학의 브랜드인 ‘가장 한국적인 대학’ 구축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도립미술관 인턴 기획 ‘다리-섬’ 전 18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미술관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예비인력들이 기획한 ‘다리-섬’ 전을 전북도청 기획실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채연석·이보미·김효원 화에서 인턴십이 의무화하면서 전시주제 설정부터 미술가 선정까지 직접 구성했다.
전시주제인 다리-섬은 오랫동안 길을 건너가 서서 일하다가 잠깐 자리를 쉬어주는 일, 이쪽과 저쪽 세계를 잇는 구조물,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이어주는 통로 등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채연석 씨는 “전통회화에서 다리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안전의 용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섬’ 이었던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깐 길을 벗어나 한 곳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기는 시간을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
이보미 씨는 “다리가 단절된 지점을 서로 연결하듯, 젊은 기획자와 젊은 미술가들이 관람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다리이고 섬이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효원 씨는 “출품작들은 자연 속 풍경과 동물들, 우리들의 모습을 재해석하여 표현하고 나타났다”며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공감해보고 다른 상상을 해보며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7년 1월 2일)

▶ 쥐띠
48년생: 식욕이 따르는 좋은 운으로 모임을 갖거나 사람과의 화합에도 좋은 운이다.
60년생: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나 사람을 얻게 된다.
72년생: 타인에게 의지 하지 마라. 그리고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니 일의 능률은 올라간다.

▶ 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1년생: 지나친 고집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73년생: 인척이 따르는 운이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라.
85년생: 정성이 맑지 않으니 세밀한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호랑이띠
50년생: 크게 움직이면 손해가 발생하는 운으로 매사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2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주의하라.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친구나 동기인과 뜻이 맞지 않으니 급격히 혼자 해결하라.

▶ 토끼띠
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 큰 피해가 된다.
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슬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

▶ 용띠
52년생: 잠시 놀랄만 할 일이 발생하니 중요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 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슬수와 사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혼자는 부부불화에 주의하라.
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 말띠
54년생: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때다.
66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줘라.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잘 해결되는 운이다.
90년생: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마음 상할만한 일이 생기니 말을 줄여라.

▶ 양띠
55년생: 구슬수가 따르는 운이다. 대립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이다.

▶ 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때를 기다려라.
68년생: 비싼기만 하고 비싼만큼의 이익은 얻기 어렵다.
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조심하라.

▶ 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실언으로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출만하니 태연히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취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

▶ 개띠
46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58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을 보게 되고, 먼저 얻으면 후에 잃게 된다.
70년생: 과도한 의무를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 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운에서 길성이 따르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는 좋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때.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다.